

영화 한인 감리교회 WA Younghwa Korean Methodist Church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2019 08 21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를 함께 나누고서

워싱턴 영화감리교회 민관영 목사

이번 책은 세 번의 시간의 통해 함께 나누는 짧은 기간의 분량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성경적인 방식으로 소개된 내용으로 인해 모인 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 장 1 절에서 5 절까지의 내용이 전부이지만 팀 켈러 목사의 탁월한 통찰력에 힘입어 모인 우리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했다. 김명분 권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교만(Hubris)에 대한 이해에서 '푸시에'라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를 통해 교만자체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일깨웠다. 차수정 권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알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의 교만을 알아서 기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한서희 권사에게 이번 시간이 짧고 굵은 통찰력을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의미의 시간이라고 했다. 나상원 권사는 모든 교만의 내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 전했다. 이준철 집사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맞이하는 다양한 손님들을 대하면서 자존감의 문제를 많이 경험했는데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길이 성경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했다. 박윤식 집사의 경우에도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이해한 교만과 그 해결점 그리고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새로운 길의 모색이 모처럼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더 나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짧지만 너무나 귀한 고백들이 풍성했던 시간이었다. 좋은 소식은 자꾸 JSU 회원이 되고 싶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